



‘광주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상영 난항

통일부 불허... 조직위, 재심의 요청 검토

‘한 여학생의 일기’



북한영화 광주상영 참 어렵네

북한 영화 상영을 추진했던 광주국제영화제가 통일부의 해당 작품 불허 방침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영화제 측은 타 작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심을 모았던 북한영화 상영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8월29일~9월2일)에서 북·미 합작영화 ‘산 너머 마을’과 ‘꽃 파는 처녀’를 상영키로 하고 지난달 말 통일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최근 “이 두 영화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 이념이 내재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미국 자본이 투입된 ‘산 너머 마을’(2012)은 최초 북미 합작영화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실학민 배병준(76)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이다. 감독과 배우, 스태프는 모두 북한 인력으로 채웠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북한 간호사와 남방 병사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시카고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인 ‘꽃 파는 처녀’(1972)는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영화다.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악독 지주와 일본 순사에게 억눌려 살던 꽃파는 일가의 삶을 그린 영화다. 대표적인 항일 영화로 꼽히는 작품으로 북한 혁명가극으로도 인기가 높다. 1972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18회 카를로비바리 세계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조직위는 두 영화 모두 이념적인 색깔보다는 운명적인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판단, 영화제 상영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했으나 통일부의 불허 방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예술성 위주의 영화를 선정했으나, 통일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듯 하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통일부의 상영 불허작을 제외한 ‘한 여학생의 일기’(2007)와 ‘김동지 하늘 날다’ 등 또다른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통일부에 재심을 요청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북·중 합작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을 상영한 바 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메가박스 광주에서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80여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직위는 또 내년부터 영화제 위상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공동영화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김동지 하늘 날다’

9월6~7일 ‘2013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세계 각국 뮤지션들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3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아프리카, 네덜란드 등 12개국, 17개팀이 참여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관하는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예술감독 이재진)이 9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남대학교와 빛고을시민문화관 입구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메인 스테이지’, ‘파티 스테이지’, ‘어쿠스틱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음악가들이 문화 난장을 펼친다. 올해에는 지역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 등 부대 행사도 처음으로 열린다.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해외 유명 뮤지션들의 독특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짐바브웨 출신으로 아프리카를



亞문화전당 대표축제
12개국 17개 팀 참여

다국적 음악가들의 문화 난장이 펼쳐진다

대표하는 짧은 밴드 모콰바(Mokoomba), 네덜란드의 유명 재즈 밴드 뉴쿨 컬렉티브(New Cool Collective), 지중해풍 음악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파블로(Pavlo)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하림의 집시 테이블, 실험적인 국악을 추구하는 잠비나이(Jambinai),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카샤(Akasha)도 관객을 만난다.

또 ‘한·중·일 프로젝트’와 ‘광주 시나위 2013’ 등 음악가들의 합연 무대가 어쿠스틱 스테이지, 파티 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한 ‘오픈 스테이지’도 마련됐다.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광주 풍암중학교 학생과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그자비에 드장드르 나바르(Xavier Desander-Navarre)가 함께 공연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축제를 영상으로 담아낼 미디어 자원봉사자인 ‘시민 VJ’도 선발했다.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무료다. 문의 062-410-345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물과 빛의 향연

내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 진시영 작가 ‘Flow’ 시리즈로 개막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의 물과 빛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개막식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진씨는 26일 오후 7시30분 탐진강변에서 열리는

‘2013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개막식’에서 무대 LED전 광관과 객석에 설치된 천막 대형 프로젝터(높이 15m·폭 20m)에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진씨가 한국전통 춤과 빛을 융합해 만든 ‘Flow’ 시리즈 영상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합수식이다. 합수식에서는 진씨가 이번 축제를 위해 ‘물’을 주제로 제작한 신작 ‘New Wave(사진)’가 천막 대형 프로젝터에 상영된다. 파도가 넘어오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무대와 객석에서 어우러지게 해 관객들은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개막식 행사를 연출한 김규량씨는 “관객들이 친근한 소재인 물과 빛을 통해서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삶의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며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의존하는 지역축제를 벗어나 예술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우리 YONAMJA 유스퀘어점

오시는 길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